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0

▶ 91회 예고
마침내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에게 가족과 함께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 등 붓다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전해 듣는다. 다만, 전국으로 파견될 담마마하마따들의 임명장 수여식 때문에 〈초전법륜경〉 뒷부분은 듣지 못한다.



마힌다, 목갈리뿟다띳사를 세 번째 찾다

아쇼까왕은 바위나 석주에만 칙령을 공포하는 것은 아니었다. 재위 17년부터는 전국의 마하마따 사무소로 왕명이 적힌 문서를 적극적으로 내려 보냈다. 가정을 가진 백성들에게 집 안팎에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도 문서 칙령이었다. 사람과 동물을 위해 길가에 반얀나무를 심어 그늘쉼터를 만들고, 우물을 파라는 칙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집 안팎에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한 왕명은 처음이었다.

물론 아쇼까왕은 다섯 그루의 나무를 정할 때도 우빠굽따의 조언을 들었다. 우빠굽따는 순례자였으므로 보고 들은 것이 많았다.

"대왕님이시여, 약이 되는 약나무에는 님(nim)나무가 있습니다. 님나무 껍질을 달여 마시면 피가 맑아집니다. 또 독충에 물렸을 때 해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작은 가지로 이를 닦으면 입안을 살균해주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열매즙은 피부병을 치료해줍니다."

"님나무는 백성들에게 약방이나 다름없소. 나무 씨는 쉽게 구할 수 있소?"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님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이니 식구들의 그늘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일나무로는 망고나무가 좋을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그렇습니다. 망고는 옛 아반띠국 북쪽 변방의 것이 유명합니다. 그곳 망고나무에서 씨앗을 가져와 퍼뜨리면 달고 큰 망고를 백성들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땔나무로는 무슨 나무가 좋겠소?"

"화력이 좋고 빨리 자라는 나무가 적당할 것입니다."

"집 짓는 재목은 단단한 나무여야 할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단단한 나무로는 살라나무만한 것이 없습니다. 살라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십시오."

"꽃나무로는 무슨 나무가 좋겠소?"

"옛 앙가국의 수도 짬빠성에서 많이 보았던 꽃이 있습니다. 흰 꽃이 피는 짬빠나무입니다. 또 붉은 마두 말띠 꽃도 아름답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다섯 그루의 작은 숲'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희망과 미래를 심는 것이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살았다는 증표를 남기는 것이오. 그러니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후손을 위한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생명을 소중하게 돌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붓다의 자비입니다. 백성들이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는 동안 붓다의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의 자비가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까지 미치는 것 같아 감동했다. 선대의 어떤 왕도 아쇼까왕처럼 사람과 동물, 식물을 위해 자비를 베풀었던 군주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3년 만에 아쇼까왕의 지시를 받은 마힌다는 다시 상선을 타고 아호강가산으로 갔다.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아쇼까왕의 재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3년 전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라마에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아쇼까왕을 위해 잠시 왕궁으로 가서 설법은 해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때 아쇼까왕은 바로 재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을 뿐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면서 자신을 위해 자주 설법해 주기를 바랐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이 3년 만에 재가한 것은 그의 강한 자존심도 한몫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듣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자 아쇼까왕은 자존심을 꺾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에 마힌다는 아쇼까왕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설법을 듣고 싶소. 장로가 아쇼까라마에 돌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나를 위해 설법을 해달라고 전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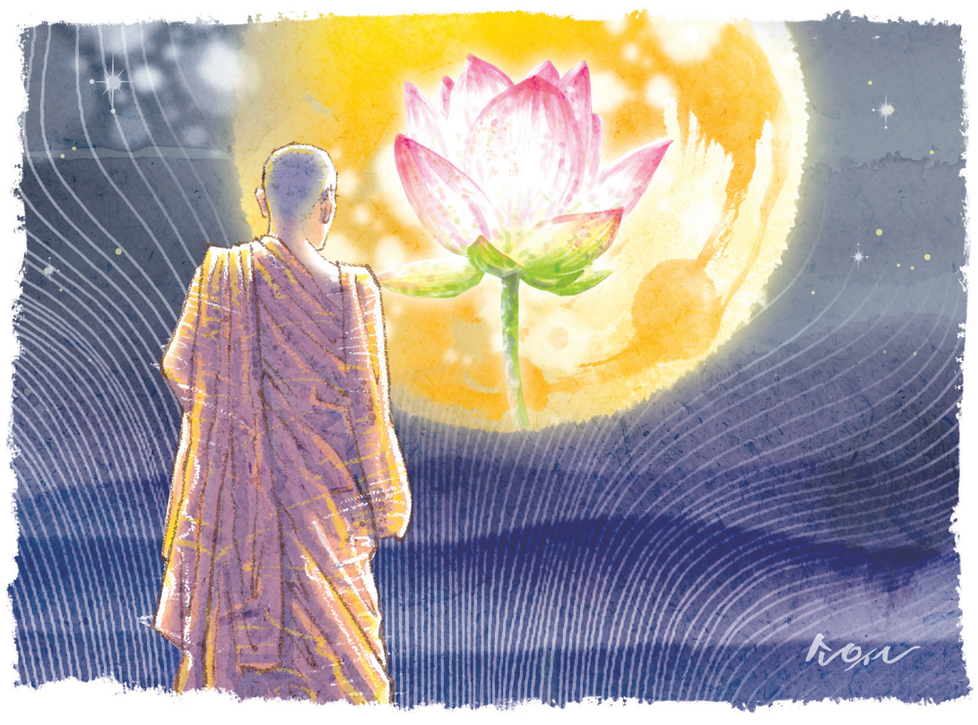
"대왕님이시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미 3년 전에 승낙했던 일입니다. 바로 아호강가산으로 가서 장로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마힌다가 아호강가산에 온 것은 벌써 세 번째였다. 이제는 마힌다의 눈에 야무나강이나 마루라 나루터, 아호강가산으로 가는 들판 등이 낯익었다. 마힌다는 망설이지 않고 아호강가산 동굴로 갔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낮에는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이다. 아호강가산 동쪽 절벽 위에 있는 동굴은 야무나강 강변과 드넓은 들판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았다. 사탕수수밭 너머 하늘에는 새떼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날고 있었다. 마힌다는 동굴 앞에서 합장한 뒤 목갈리뿟다띳사를 불렀다.

"스승님!"

그런데 목갈리뿟다띳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힌다의 말이 동굴 안에서 공명할 뿐이었다. 마힌다는 다시 한 번 더 부르고는 그래도 기척이 없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쪽에 발우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목갈리뿟다띳사는 없었다. 마힌다는 발우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어린 사문들에게 하시는 강론을 밤에서 낮으로 옮기셨나?'



마힌다는 동굴을 나와서 목갈리뿟다띳사가 머무르고 있는 꾸띠로 갔다. 꾸띠는 아호강가산의 움막들 중에서 가장 오랜 된 집이었다. 아난다의 제자이자 우빠굽따의 스승이었던 삼부따 사나와시가 살았던 꾸띠이기도 했다. 아호강가산 비하르에 상주하고 있는 사문들이 목갈리뿟다띳사를 수석장로로 추대하여 그곳에 머무르게 했을 터였다. 목갈리뿟다띳사의 위상은 아호강가산으로 와서도 여전했기 때문이었다.

마힌다는 꾸띠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꾸띠 안에서 경을 외우는 소리가 났다. 마힌다의 예상은 정확했다. 특별한 날인지는 모르지만 강론시간이 낮으로 옮겨져 있었다.

마힌다는 꾸띠 밖에서 기다렸다. 목갈리뿟다띳사의 강론은 석양이 기울 무렵에야 끝났다. 어린 사미들이 재잘거리며 밖으로 나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마힌다는 꾸띠 안으로 들어가 합장했다. 그런 뒤 자신의 오른손으로 목갈리뿟다띳사의 발을 만지고서는 자신의 이마에 갖다대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합장하면서 말했다.

"3년만이군."

3년 만에 왔다고 타박하는 말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다는 말투였다. 마힌다는 3년이나 아쇼까왕의 재가가 늦어진 이유를 말하지 않고 왕명만 전했다.

"스승님께서 아쇼까라마에 상주하시지 않더라도 대왕님께서는 스승님의 설법을 들으시겠다고 청했습니다."

"내 설법을 원하는 곳이라면 왕궁이 아니라도 어디든 갈 수 있소."

"대왕님께서는 스승님 설법을 열정적으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소. 다만 사미들에게 하고 있는 강론을 멈출 수는 없소. 강론을 마치는 날 바로 왕궁으로 가겠소."

"대왕님께서는 스승님의 설법을 듣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말고도 아쇼까라마에는 천 명의 장로가 있지 않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떤 장로가 설법하든 붓다의 가르침은 같기 때문이오."

"대왕님께서 왕자시절일 때 스승님이 대왕님을 가르쳤던 인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때의 인연은 선연이라기보다 악연이었소. 왕자에게 자비를 가르치려다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왕궁을 떠나버렸으니까."

"니그로다 장로의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대왕님께서 어린 시절의 일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기에 스승님을 아쇼까라마 수석장로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마힌다는 화제를 돌렸다.

"아쇼까라마는 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외도들이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훼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외도인지 사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대왕님께서 파견한 담마마하마따도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고 다니는 외도는 가리지 못합니다."

"우뽀사타를 방해하는 외도들이 사라진 것이오?"

"스승님께서 떠나실 때 우뽀사타를 중지했습니다만 대왕님께서 우뽀사타를 계속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우뽀사타를 방해하는 외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만 아쇼까라마에 아직도 외도들이 숨어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외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한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목갈리뿟다띳사는 율사로서 계율이 지켜지는 청정한 사원을 원했다.

"방법이 있기는 하지요."

"스승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오."

그제야 마힌다가 목갈리뿟다띳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담마마하마따가 한 사람씩 불러놓고 구두시험을 치르게 하면 되겠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팔을 휘휘 저었다.

"담마마하마따가 논쟁에서 외도에게 질 수도 있소."

"그렇다면 우빠굽따 장로가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빠굽따 장로는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것이오. 왜 적을 만들겠소? 다른 장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붓다께서는 제자들에게 논쟁하지 말라고 했소."

"스승님, 외도를 추방할 힘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일 것 같습니다."

"그렇소. 오직 대왕님뿐이오."

마힌다는 아쇼까왕만이 외도를 추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또 하나의 방편을 얻고는 아호강가산을 떠났다. 이제 목갈리뿟다띳사는 꾸띠의 강론이 끝나는 대로 빠딸리뿌뜨라 왕궁을 방문할 터였다.

나흘 만에 빠딸리뿌뜨라 왕궁으로 돌아온 마힌다는 바로 아쇼까왕 집무실로 갔다. 아쇼까왕은 경호대장에게서 마힌다가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집무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 마힌다가 다소 들뜬 말투로 보고했다.

"드디어 대왕님께서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소. 그런데 왜 혼자 왔소?"

"장로님은 그곳에서 해왔던 강론을 마치는 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한두 달 후면 올 것입니다."

"장로의 노고로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듣게 되었으니 기쁘오."

"대왕님이시여, 장로가 아니라 아들로서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들 들어주지 못하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아쇼까라마에 든 외도를 추방하는 일은 대왕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말로 외도인지 사문인지를 구분한단 말이오?"

"붓다의 가르침에 답이 있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 내용은 붓다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스승님의 설법을 들으신 뒤 의심이 가는 사문들을 한 사람씩 불러 붓다의 가르침을 질문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외도일 것입니다."

"아, 좋은 방편이오."

마힌다는 몹시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야말로 아쇼까라마를 완전하게 정화할 수 있게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집무실을 나와 경전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전법륜경〉을 소리 내어 외우며 아쇼까라마로 돌아갔다. 중천에 뜬 보름달이 마힌다를 뒤따르며 밤길을 밝혀주었다.〈계속〉

